

# 朝鮮通信使와 日本端午\*

魯成煥\*\*

---

## 目次

---

1. 서론
  2. 일본 단오를 기록한 조선의 지식인들
  3. 조선인들의 기록한 일본 단오
  4. 그들의 기록이 가지는 현재의 한계와 의의
  5. 결론
- 

## 1. 서론

현대인이 고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고어를 배워 원전을 직접 읽거나 아니면 현대어로 번역된 것을 읽어야 한다. 특히 고어를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을 현대어로 옮겨주는 번역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의 작업 없이는 고인들과의 대화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만일 옛 사람이 외국을 여행하고 그곳의 민속에 대해 글을 남겼다면 번역가의 힘으로는 부족하다. 단순히 현대어로 번역하는 것만으로는 그 의미를 파악하기 어렵다. 그에 따른 해설이 필요하며, 해설하기 위해서는 고인이 여행했던 외국의 민속에 대해서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 작업은 그다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렇다고 그 상태로 방치해둔다면 자신의 체험을 후세에 남기기 위해 애써 기록한 것이 허사로 돌아가 버리는 결과가 되

---

\* 이 논문은 2006년 울산대학교 연구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울산대학교 일본어·일본학과 교수 비교민속학

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라도 외국문화에 대한 지식을 넓히고 그들이 남긴 문헌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조선시대에 외교의 목적으로 일본을 다녀온 사람들이 많다. 그리고 임진과 정유재란으로 말미암아 포로가 되어 억류생활을 보내다가 돌아온 사람들도 있다. 그들은 각자 체험한 것을 후세인들을 위해 많은 기록들을 남겼다. 그러한 것을 한 곳에 모아 전집형태로 간행한 것이 『해행총재(海行總載)』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해행총재』는 당시 지식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일본에 대한 정보를 총망라한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들 기록 가운데 일본민속에 관한 것들도 많다. 어쩌면 그들의 기록이 한국에 있어서 일본민속에 관한 최초의 기록일지도 모른다. 이러한 기록을 일본민속을 연구하는 사람이 해설자의 입장에 서서 그 기록을 검토하고 옛사람들이 현대인들과 대화를 할 수 있도록 그들의 의사를 현대인들에게 전달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민속학계에서는 이러한 시도를 한 적이 거의 없다. 그 뿐만 아니라 일본의 연구자들 사이에서도 그것에 대한 노력을 기울인 적이 별로 없다. 이에 본고는 민속부분 가운데 단오를 중심으로 검토하고 오늘날 현대인들에게 그들이 남긴 기록의 의미를 전달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이를 보다 효과적으로 접근하기 위해 그들의 기록을 통하여 그들이 일본의 단오민속을 자기문화와 비교하여 어떠한 요소를 같고, 다른 것으로 보고 있는지, 또 문화적으로는 오해가 없었는지, 그리고 그들의 한계점은 어떠한 것인지 그러한 한계성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들이 남긴 기록이 민속학적인 관점으로 보았을 경우에는 어떠한 가치와 의의를 가지고 있는지 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

## 2. 일본 단오를 기록한 조선의 지식인들

조선통신사들 기록 가운데 일본의 단오를 직접 체험하고 기록한 사람도 있지만 그와는 반대로 전혀 체험도 하지 않은 채 기록한 사람들도 있다. 물론 체험한 사람은 그것에 대해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은 그것을 묘사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그러므로 검토하기에 앞서 이 점을 고려해 둘 필요가 있다.

일본에서 단오를 직접 체험한 사람은 시대 순으로 본다면 1420년 회례사로 일본을 다녀온 송희경, 정유재란 때 일본군에 포로가 되어 토쿠시마(德島)에 억류되어 있다가 1599년에 귀국한 정희득, 그리고 1607년에 통신부사로 일본을 다녀온 경섬, 이름은 알 수 없지만 1643년 통신사의 일행을 따라 일본을 다녀온 『계미동사일기』의 작자, 1811년 마지막 통신사의 일행이었던 유상필이 있다.

그리고 사행으로 일본을 다녀왔지만 시기적으로 맞지 않아 일본 단오를 체험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자로서는 1617년에 일본을 다녀온 이경직, 1624년에 다녀온 강홍중, 1636년에 다녀온 김세림, 1719년에 다녀온 신유한 등이 있다. 그들은 직접 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내용이 자신의 일지에는 나오지 않고, 대개는 「문견잡록」, 「문견총록」, 「견문잡록」이라는 이름 하의 부록에 일본인의 생활상을 소개하는 속에 잠시 나올 뿐이다. 이러한 기록들이라고 해서 소홀히 다룰 수는 없다. 왜냐하면 어쩌면 그들의 기록이 조선시대의 지식인 사회에 있어서는 일본에 대한 일반적인 상식이었는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일본단오에 대해 기록한 조선의 지식인들은 많았다. 대개 연도적으로 볼 때 1420년의 송희경을 필두로 1811년의 유상필까지 본다면 그들의 기록은 그야말로 무로마치막부(室町幕府) 때부터 에도막부(江戸幕府) 말기 경까지의 기록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그들의 단오풍속은 그 때의 생활상을 이해하는데 매우 큰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그들 중 송희경의 기록을 빼고 나면 대부분이 에도시대에 국한된다. 그러므로 그들의 단오에 관한 기록은 에도시대의 일본인들의 생활상이라 할 수 있다.

더군다나 그들의 여행목적이 정치외교에 있었던 만큼 어느 한 곳에 머무는 것이 아니었다. 그러므로 그들의 단오체험은 한곳에 집중되어있지 않다. 가령 송희경은 교토에서 단오를 맞이했고, 정희득은 토쿠시마에서 단오를 체험했다. 그리고 경섬은 에도에서 단오를 보았고, 『계미동사일기(癸未東槎日記)』의 작자와 유상필은 대마도에서 단오를 체험했다. 그러므로 그들의 단오가 매우 지역적일 수 있지만 한 곳에 국한되어 있지 않음으로써 당시 일본 전체적인 단오의 특징을 살펴보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다.

### 3. 조선인들이 기록한 일본 단오

조선인들이 일본 단오를 보고 어떤 점이 우리의 문화와 같고, 다름을 느꼈을까? 그들의 기록을 살펴보면 동일한 것 보다 차이점을 더 많이 느꼈던 것 같다. 먼저 동일하다는 것부터 살펴보면 그들은 창포의 민속에 대해 자신들의 문화와 같다고 평가했다.

창포에 관한 기록은 세종 때 회례사로 갔던 송희경이 처음이다. 그는 교토에서 단오를 맞아 일본측으로 부터 창포주를 대접받고 감격하였는지 다음과 같은 시를 남겼다.<sup>1)</sup>

부세의 광음이 나날이 재촉하니	浮世光陰日日催
객중에서 절서 음을 어이 보려나.	忍看節序客中回
이역의 옛 절에서 단오를 만났는데,	殊方古寺逢端午
등전이 은근히 약 술잔을 권하네.	藤殿慙勸藥杯

이상의 송희경의 창포주에 관한 시는 조선 초기 일본에서는 단오를 맞이하여 창포주를 마시는 풍속이 있었음을 증명하여주는 좋은 자료이다. 그러나 그는 창포주를 마시면서도 일본의 창포민속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나타내지 않았다. 이러한 태도는 다른 조선통신사들도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토쿠시마에서 억류생활을 한 적이 있는 정희득은 그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매우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왜의 풍속도 역시 단오를 명절로 알아, 창포를 잘게 썰어서 술에 타 마신다. (생략) 단옷날에는 창포와 푸른 쭉대를 묶어 처마 끝이나 문 위에 단다.<sup>2)</sup>

이처럼 정희득은 마치 자신과 닮은 모습을 이국땅에서 발견하여 감동이 라도 하는 듯이 일본인들이 창포의 민속을 알고 있다는 것에 대해 신기롭게 생각했다. 이러한 기록을 통해 그는 당시 일본인들이 단옷날이 되면 창포를 잘게 썰어서 술에 타서 창포주를 만들어서 마셨고, 또 창포를 푸른 쭉대와 함께 처마 끝이나 문 위에 달아 놓고, 또 창포 잎으로 떡을 싸서 먹는 민속이 있음을 알 수 있다.

1) 송희경 『일본행록』 <남만성역> 『국역 해행총재(8권) 所収』 (민족문화추진회, 1967년) p84

2) 정희득 『해상록』 <김달진, 이상형역> 『국역 해행총재』 (민족문화추진회, 1967년) p244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일본 단오의 모든 요소들을 자신들과 동일한 선상에서 놓고 본 것은 아니었다. 매우 이질적으로 느끼는 것들도 적지 않았다. 이러한 것들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는 「노보리(幟)」이다. 노보리란 ㄱ자 모양의 세로로 길다랗게 만든 막대기에다 천을 끼워서 만든 깃발을 말한다. 그들의 기록 가운데 가장 많이 눈에 띄는 것 중의 하나가 깃발에 관한 서술이다. 또한 단오를 체험하지 못한 자들도 모두 이 깃발만은 빠뜨리지 않고 기록하고 있다. 그 만큼 그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

그 깃발에 대해 정희득의 『월봉해상록(月峯海上錄)』에 “왜인의 풍속에 단오 날이면 집집마다 붉고 흰 깃발을 세우며,”라고 되어있고, 경섬의 『해사록(海槎錄)』에 “남자가 있는 집은 각기 종이 기를 세워.”, 또 강홍중의 『동사록(東槎錄)』<sup>3)</sup>과 김세렴의 『해사록』<sup>4)</sup>. 그리고 황호의 『동사록』<sup>5)</sup>에도 “단오에는 집집마다 기를 꽂고”라는 기록이 보이며, 신유한의 『해유록(海遊錄)(하)』에서도 앞의 것과 거의 대동소이한 “단오에는 집집마다 기를 세워서.”라는 기술이 보인다. 일본에서 경험해본 자도 그렇지 못한 자도 일제히 여기에 대해서는 빠뜨리지 않고 조금씩 언급하고 있는 것이다. 오히려 단오를 체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 전혀 언급이 없는 송희경이 이상할 정도이다.

그들이 말하는 깃발이란 앞에서 말한 「노보리」를 말하는 것이다. 「노보리」라는 깃발은 전쟁에 출정할 때 필요한 것으로 원래는 단오와 무관한 것이었다. 일본의 민속학자 한자와 토시로오(半澤敏郎)은 그것이 단오와 관계를 맺기 시작하는 것은 대략 카마쿠라(鎌倉)시대 이후로 추정했다.<sup>6)</sup> 그러한 것이 에도시대에도 계승되어 무사들의 집안에서는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현관 앞에다 馬印<sup>7)</sup>과 「노보리」를 세우고 축하하는 풍습이 생겨났다.

1662년경의 문헌으로서 『안내자(案内者)』라는 것이 있다. 이것은 교토(京都)를 중심으로 神社佛閣의 제례나 법회를 소개하는 것으로서 오늘날의 표현을 하자면 일종의 관광안내책자이었다. 여기에 단오의 풍경에 대해서 그림으로 그려져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보면 길가에 먼한 건물 중방 하나를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볼 수 있게 개방되어 있다. 그 방과 길에

3) 강홍중 「동사록 문견총록」 『국역 해행총재(3)』(민문고, 1967년).p286

4) 김세렴 「해사록 견문잡록」 『국역 해행총재(4)』(민문고, 1967년). p173

5) 황호 「동사록 문견총록」 『국역 해행총재(4)』(민문고, 1967년). p437

6) 半澤敏郎 『生活文化歳事史』(東京書籍株式会社, 1990年) p182

7) 이는 사무라이들이 자기 타는 말 옆에 서서 자신의 소재를 나타내는 깃발의 일종을 말한다.

는 평상을 붙여 놓고 평상 앞에 대나무로 울타리를 만들었는데, 그것에다 깃발을 세워놓고 있다. 그리고 맞은 편집에서도 길가에 세워놓은 깃발이 두 개가 보이는데, 그 중 하나의 깃발 안에는 줄이 여러 개 쳐져 있다. 아마도 정희득이 보았다는 깃발은 이러한 것을 말하는 것일지도 모른다.

그보다 조금 뒤인 1688년에 貝原好吉이 쓴 『일본세사기(日本歲事記)』에 그려진 단오의 풍경도 마찬가지이다. 현관 앞에 여러 가지 깃발을 세워 두었는데, 그 속에는 부채꼴 모양의 무늬가 그려져 있는 것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한편 자기 집안을 나타내는 문양 등 그려져 있는 것이 있다. 이를 보더라도 당시 깃발에는 여러 가지 그림과 무늬를 넣어서 만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들은 이러한 것들을 보았던 것이다.

둘째는 석전(石戰)이다. 일본 단오를 체험하지 못한 강홍중, 김세렴, 황호는 “군중이 모여 곳곳에서 싸움을 익힌다.”고 공통적으로 서술했고, 또 신유한도 “단오에는 집집마다 기를 세워서 전쟁을 익히는 장난을 하니”하며 아주 간단하게 서술하고 있다. 아마도 그들은 직접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 전쟁놀이가 석전인지 알 수 없다.

그러나 직접 체험한 정희득과 경섭의 기록을 보면 그것은 다름 아닌 석전임을 분명히 알 수 있다. 예를 들면 정희득은 “아이들은 제각기 크고 작은 목검을 차고 물가에 진을 치고 물을 사이에 두고 양편으로 갈라, 돌을 던지며 싸우는데 죽어도 걱정하지 않는다.”고 기술 또 경섭은 다음과 같이 매우 소상하게 기술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통하여 당시 토쿠시마에서는 강을 사이에 두고 서로 두 편으로 나누어 돌을 던지며 싸우다가 끝내는 목검으로 서로 치고 받고 싸우며 승패를 가리는 행사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그 놀이가 얼마나 치열했는지 1607년에 일본에 간 경섭(慶暹)은 놀란 표정으로 에도(江戸)의 석전을 다음과 같이 바라보았다.

초하루부터 남자가 있는 집은 각기 종이기(紙旗)를 세워 싸움을 보고하는 도구로 삼아 미리 용맹을 기른다. 이 날이 되면 먼저 아이들을 곳곳에 모아 둔치게 하여, 이쪽 저쪽이 대진하여 돌로 마구 치기를 마치 우리나라의 씨름 놀이처럼 한다. 오후에는 원근의 장정이 귀친을 가리지 않고 창과 칼을 메거나 들고, 뒤질세라 분주히 모여들어 수천 명이 떼를 지어 진을 치고 상대하는데, 그 나아가고 물러나고 앉고 일어서며, 모이고 헤어지고 유인하는 형세는 한결같이 전법에 의거하였다...(생략)... 서로 다투어 치고 죽여, 죽음을 봐도 굳 세계 나아가는데 해가 저무는 것을 시한으로 삼는다. 죽은 자가 40여명이나

되고, 그 나머지 어깨가 잘리고 다리가 베어져 상처를 입고 돌아온 자가 이렇다 기록할 수가 없다. 살인의 많고 적음을 가지고 승부를 결정한다.<sup>8)</sup>

이러한 놀이를 대개 조선인들은 일본인의 호전성을 길러주는 것으로 보았다. 그 예로 경섬은 위의 석전을 보고 “일본의 국속은 사람 잘 죽이는 것을 담용으로 삼는다. 그러므로 살인을 많이 하는 자는 비록 市井의 천한 사람일지라도 聲價가 곧 배로 오르고, 두려워서 회피하는 자는 비록 權貴의 자제라 할지라도 온 나라가 버려서 사람들에게 용납되지 못한다. 그 삶을 가벼이 여기고 죽기를 즐겨하는 풍속이 이와 같다.”<sup>9)</sup>고 평가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석전에 대해 높은 관심을 표명하면서 깜짝 놀란 표정으로 바라본다는 것은 그 만큼 그 놀이가 그에게는 이질적인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셋째는 단오 때 먹는 음식이다. 여기에 대해 단오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기술하지 않고 있지만, 단오를 경험한 사람들은 실제로 보고 또 먹어본 탓에 그에 대해 서술을 하고 있다. 가령 정희득은 일본인은 단오 때 “창포 잎으로 떡을 싸두었다가 먹는다.”고 했고, 『계미동사일기』에서는 대마도주가 단옷날에 음식을 보내왔는데, 그것이 “찰쌀밥을 풀잎 새에 싼 것인데 둥글기가 마치 계란과 같았다.”고 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일본의 단오 음식을 그들은 창포 잎으로 싼 떡이라든가 풀잎새로 싼 찰쌀밥이라든가 하는 표현은 그러한 음식이 당시 조선에서는 보기 드문 것으로 매우 낯 설은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들이 말하는 음식은 도대체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일까? 전자의 것은 창포 잎으로 싼다는 것으로 보아 아마도 치마키(粽)를 말하는 것 같다. 왜냐하면 그것은 중국에서 전래된 음식으로 오늘날에는 땃잎과 같은 길쭉한 새이영(茅)의 잎으로 쌀밥을 싸서 찐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이지만 옛날에는 그 속에 떡을 넣기도 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菰葉, 또는 창포 잎으로 그것을 싸기도 했다.<sup>10)</sup> 당시 토쿠시마에는 창포 잎으로 떡을 싸서 치마키를 만들었음을 정희득은 알려주고 있는 것이다.

반면 후자의 것은 앞의 치마키처럼 길쭉한 것이 아니라 계란과 같은 둥근 밥이라는 것으로 보아 떡갈나무 잎으로 음식을 싸서 만든 「카시와모치

8) 慶暹 『해사록』(하)<정봉화역>『국역 해행총재(2) 所收』(민족문화추진회.1967년) p298

9) 경섬, 앞의 책. pp298-299

10) 山中裕 『平安朝の年中行事』(槁書房. 1972年) p207

(柏餅)」임에 틀림없다. 카시와모치는 보통 떡을 떡갈나무 잎으로 싸는 것으로 되어있다. 그러나 『계미동사일기』의 내용에서 보듯이 떡이 아닌 찹쌀밥으로 만드는 것도 있었다. 이처럼 에도시대 이미 일본인들은 단옷날에 중국에서 전래된 치마키 이외에도 그들이 개발한 카시와모치를 절식으로 먹고 있었음을 이들의 기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그들은 자신이 태어나고 자라난 조선을 기준으로 일본 단오를 보았다. 그러한 시선을 통하여 창포의 민속은 동일한 선상에서 보았지만, 노보리와 석전 그리고 음식 등은 이질적인 요소로 바라다보았던 것이다.

## 4. 그들의 기록이 가지는 한계와 의의

### 4-1. 한계

#### (1) 그들이 보지 못한 것은?

그들의 기록 가운데 특이한 것은 단옷날에 장식하는 갑옷, 투구, 창 등의 무기류의 장식물에 대해 전혀 언급이 없다는 점이다. 당시 일본인들은 단오가 되면 집의 안팎에다 갑옷을 입은 무사의 인형은 여러 가지 무기류를 장식하는 풍속이 널리 행하여지고 있었다.

그 예로 『안내자(案内者)』에 나오는 단오그림에 길과 접한 곳에다 대나무로 책을 두르고 그것에다 장식용 투구와 창을 달아놓고 있는 모습이 보인다. 또 장식용 투구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양쪽 사슴 뿔 사이에 조그마한 인형이 서있는 모습도 보인다. 그리고 앞에서 본 『일본세사기』의 단오그림에도 출입문 바깥 좌우에 나무 막대기로 柵을 두르고 그것에다 깃발, 사슴뿔과 창포로 만든 투구, 그리고 창이 그려져 있다. 또 에도 중기에 나온 것으로 추정되는 『보영화락세견도(宝永花洛細見図)』에도 그러한 것들이 뚜렷하게 보인다. 길과 접한 건물 한쪽을 활짝 열어놓고 그 앞에 평상을 깔고 그 위에다 사슴뿔과 창포로 만든 투구는 나무로 만든 지주대로 바쳐놓고 또 그 옆에는 갑옷을 입은 무사인형을 놓았다. 그리고 평상 옆에는 여러 가지 창을 세워놓고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게 하고 있다. 이러한 그림은 1838년 齊藤行成에 의해 편찬된 『동도세사기(東都歲事記)』에도 보인다. 이처럼 에도(江戸)의 전기와 중기와 후기에 이르기까지 집 앞에 책을 두르고, 장식용 투구나 깃발, 그리고 장도와 모창 등을 사람들이 나니는 길과 접한 곳에 장식해놓았던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이 에도 중기부터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다. 그 예로 1744년쿄오토의 화가 西川祐信이 그린 『회본침각종(繪本寢覺種)』에는 집안 뒷마루에다 무사의 인형이 장식되어있는 것이다. 즉, 지금까지 바깥에 장식되었던 것이 서서히 집 안으로 들어가기 시작한 것이다. 그러한 변화가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난 것은 그 보다 4년 뒤인 1780년에 나온 『회본롱(繪本弄)』의 단오그림이다. 이것에 의하면 무사인형들은 뒷마루에서 실내로 들어가 아예 방 안에 장식되어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후기로 내려올수록 두드러지게 변화되어 오늘날에는 바깥에 전시하는 무사인형은 아예 없다. 모든 5월의 인형은 방안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1811년의 대마도에서 단오를 체험한 유상필이 인형을 보지 못했다는 것은 이해가 된다. 그러나 송희경과 정희득, 그리고 경섭과 『계미동사일기』를 쓴 작자가 보지 못했다는 것은 좀처럼 납득이 되지 않는다. 더군다나 정희득은 3년 가까이 일본에서 살았던 인물이기 때문에 그것을 보지 못했을 리는 없다. 그의 저서에서 이것이 보이지 않는 것은 보았으면 서도 빠뜨렸을 가능성이 크다.

그에 비해 외교목적으로 일본으로 갔던 통신사 일행들은 그와는 사정이 다르다. 실제로 보지 못하였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왜냐하면 당시 일본은 외국과의 접촉을 꺼려하는 쇄국정책을 펴고 있었던 시기였기 때문이다. 이 시기에는 막부의 허락 없이 일본인들은 외국인과의 교류를 가질 수가 없었다. 그와 마찬가지로 통신사들도 거리로 마음대로 나가서 일반서민들과 접촉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리고 통신사 일행이 지나가는 길은 언제나 깨끗하게 정비가 되어 있어야 했기 때문에 그들이 지나가는 길에 앞에서 본 무기류의 장식물들이 전시되는 것을 당국이 금지시켰는지도 모른다. 그러한 상황이었다면 그들은 단오날 일본인들이 사는 거리를 통과하였다 하더라도 길가에 세워놓은 단오의 장식물을 볼 수가 없었을 것이다. 그들이 깃발을 보면서도 그 깃발 안에 어떤 그림이 그려져 있는지를 표현하지 못하고, 또 너무 간략하게 서술할 수밖에 없었던 것도 가까이서가 아니라 먼 곳에서 바라본 것을 그대로 표현한 결과가 아닐까? 즉, 그들은 지극히 행동이 제약된 상황에서 일본 단오를 체험한 것이었다.

그리고 그들은 창포의 민속도 보지 않고 있다. 앞에서 보았듯이 일본에서 포로생활을 하였던 정희득만이 일본인들은 창포주를 마시고, 창포와 쑥을 묶어서 처마와 출입문에 매달아둔다고 소개하고 있을 뿐 사행의 기록에는 그러한 것이 일체보이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모습이 당시에는

매우 일반적인 모습이였다.

창포는 잎의 모양이 칼과 같고, 또 썩은 향기가 강렬하여 옛날부터 액을 쫓는 신비로운 힘을 가진 식물로서 인식되었다. 그리하여 창포주는 만병을 막아주고, 건강을 지켜준다는 의미를 지니게 되었고, 또 히로시마(広島)의 히하군(比婆郡)과 같은 곳에서는 창포주를 마시면 뱀의 피해를 입지 않는다는 속신마저 생겨났다고 한다. 그리하여 일본인들은 창포주를 마시고 또 그것들을 처마 끝이나 문 위에 달아 두었던 것이다. 그 뿐만 아니다. 옛날에는 귀족들이 타는 가마에도 창포로 장식을 했으며, 고대에는 단옷날 대궐 안으로 들어오는 군신들은 모두 창포의 덩쿨로 머리를 장식토록 했다고도 한다<sup>11)</sup>.

실은 정회득과 조선통신사들이 보지 못한 것이 또 하나가 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창포탕에 목욕하는 풍속이다. 그것 또한 중국에서 전래된 것으로 중국에서는 일찍이 5월 5일 난 잎을 넣은 탕에 목욕함으로써 잡기를 쫓는다고 믿었다. 이를 난탕(蘭湯) 또는 목란(沐蘭)이라 하는데 이것이 무로마찌(室町) 시대에 일본에 들어와 에도(江戸)시대에 접어들면 궁중뿐만 아니라 민간에도 널리 퍼져 대중목욕탕에서도 고객들을 위해 창포탕을 만들었다. 오늘날에도 이러한 전통은 변함없이 전하여 온다. 그런데 창포탕에는 여성이 먼저 들어가는 것이 좋다고 하며, 그 때 창포 잎으로 머리띠를 하고 목욕하면 두통으로 고생하지 않는다는 속신마저 있다.<sup>12)</sup>

정치외교적인 목적으로 간 그들이 일본인의 실내 풍속까지 들여다본다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무리였다. 그리고 어찌면 그들은 그 날 일본인으로부터 창포탕에 목욕을 하는 기회를 제공받았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우리처럼 창포를 삶은 물에 머리를 감는 것과는 달리 뜨거운 목욕물에 창포의 다발 또는 창포 잎을 넣는 것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인식이 없으면 그냥 스쳐 지나쳤을 가능성도 높다. 이처럼 실내에서 벌어지는 일본의 풍속을 들여다볼 수 없었던 것도 그들의 기록이 가지는 한계이다.

## (2) 그들이 잘못 이해한 것은?

이와 같이 통신사 일행들이 행동에 제약이 따랐다고 한다면 그들에게 있어서 다소 오해가 생기는 것도 어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르겠다. 그 대표적인 예가 경섭이 “일본 66주 사람들이 곳곳마다 다 싸움하되 료오토만은

11) 入江相政編 『宮中歳時記』(TBS, ブリタニカ, 1979年)p131

12) 桶口清之 『日本の風俗の迷』(産報, 1984年)p7

채붕(彩棚)과 산대놀이를 베풀고 남녀가 술과 음식물을 성대히 마련, 잔치하며 놀다가 과한다고 한다.”는 부분이다. 즉, 그에 의하면 교오토에는 석전놀이가 없다는 것이다.

과연 그럴까? 이는 사실과 다르다. 교오토에도 석전이 있었다. 특히 교오토에서는 5월5일 후지모리마츠리(藤森祭)와 카모(賀茂)의 경마행사(競馬行事)가 끝나고 돌아가는 길에 석전이 있었음은 『안내자』에도 잘 나타나 있다. 그에 관련된 부분을 잠깐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후지모리사의 행사가 끝나고 돌아가는 길 上은 5條의 다리, 下는 7條의 강을 경계를 삼아 晴明塚과 塩竈을 진지로 하여 印地(석전)을 벌이며, 또 카모(賀茂)의 행사가 끝나고 돌아가는 길에는 이마테가와(今出川)을 경계로 下는 아라가미가와(荒神川)을 경계로 삼고, 中御靈後를 진지로 삼아 印地를 벌인다. 紫野에서 서쪽지역에서도 강가에서 카모의 행사에서 돌아오는 길에 인지를 벌인다. 그리고 内野에서 聚樂의 들판을 경계로 해서 인지를 하기도 한다. 사람들이 많이 다쳐서 寛永年中(1624-1644년)에 이를 금지시키는 법령이 있어서 지금은 사라지고 없다.<sup>13)</sup>

여기에서 보듯이 교오토에서도 여기저기서 석전이 사상자가 나올 정도로 치열하게 벌어졌다. 적어도 그것이 1624년 이전에는 있었다는 것이 된다. 경점은 그보다 앞선 1607년에 교오토에서 단오를 맞이했다. 그러므로 그것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확인하려고 하였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고 교오토에 석전이 없다고 한 것은 그에게 잘못 전해준 일본인 탓일 수도 있고, 또 그것을 잘못 전달한 통역자의 실수일 수도 있다. 아무튼 그의 오해는 그가 현지에서 얻은 지식을 지역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확인하지 않은 것에서 생겨난 것이었다. 더군다나 외교목적으로 온 그들에게는 일본 민속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여길 수 있기에 그럴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 것이다.

그러나 조선통신사들 가운데 특히 경점이 일본의 석전을 보고 깜짝 놀란 모습으로 바라다본다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을 뿐 아니라, 그것에 해당되는 조선의 놀이로 씨름을 들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더더욱 이해가 가지 않는다. 왜냐하면 당시 조선사회에 있어서도 석전이 여기저기서 행하여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13) 洲鎌佐智子, 「端午」 『京の五節句』(京都文化博物館, 2000年) p19

일찍이 손진태는 한국의 석전에 대해 “20세기 직초까지도 조선의 각지에 유존되었던 것 같다.”고 하며 근년의 것으로는 전라도 여수, 황해도 안악, 평산, 백천 지역의 예를 들고, 또 역사적인 것으로는 유득공(柳得恭)의 『경도잡지(京都雜誌)』와 홍석모(洪錫謨)의 『동국세시기(東國歲時記)』, 어숙권(魚叔權)의 『패관잡기(裨官雜記)』,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의 김해 풍속 조 등에 기록된 것을 들었다. 그러면서 그는 석전이 아마도 원시시대로부터 시작되어 고구려에서는 대동강에서 군사훈련으로서 실시하였으며, 그 전통이 고려에 이어 조선에 이르러서도 계속되다가 조선시대의 말기에 이르러 유희화 되어 내려오다가 현대에 접어들어 그 자취를 감추었다고 해석했다.<sup>14)</sup> 이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석전은 현대에 이르기 까지 뿌리 깊게 내려온 전통적인 놀이임에 틀림없다.

민속학자 김택규는 홍성민(1536-1594년)이 펴낸 『졸옹집(拙翁集)』(권6)에는 경주의 석전이 소개되어 있고, 또 그는 실제 현장조사를 통하여 경북 문경군 산북면 수중리에도 근대에 까지도 석전이 있었다는 것을 보고하고 있다.<sup>15)</sup>

이처럼 석전은 한국에서도 그다지 보기 어려운 민속이 아니었던 것이다. 더군다나 『동국세시기』와 『경도잡지』에 소개되어있는 석전은 서울의 예이다. 그러므로 경섬이 석전을 몰랐다는 것에 대하여 납득이 가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만일 그가 몰랐다면 일본뿐만 아니라 자신의 민속놀이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었던 인물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와 반대로 조선의 석전에 대해서도 알고 있으면서도 그렇게 놀란 듯이 기록하고, 또 그에 해당되는 놀이로서 우리의 씨름을 든 것은 의도적으로 일본인을 매우 호전적인 민족임을 강조하기 위함이었을 것이다. 만일 그것이 사실이라면 경섬을 비롯한 당시 조선의 지식인들은 일본인을 호전적이라는 편견을 가지고 바라보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하겠다. 그러한 의식은 아마도 임란을 경험한 경계심에서 생겨난 것인지도 모른다.

한편 다른 달의 민속을 단오로 착각하여 기록한 사람도 있었다. 그 대표적인 자가 신유한 이다. 신유한은 일본의 단오를 체험하지 못한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단오에 대해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다.

14) 손진태 「石戰考」 『손진태선생전집(2)』(태학사, 1981년) p168

15) 金宅圭 『韓國農耕歲時の研究(上)』(第一書房, 1997年) pp273-282

겨울 추위가 맹렬하지 아니하여 예로부터 눈이 한 자 되도록 쌓일 때가 없고 국가에도 얼음을 저장하는 법이 없다. 오직 후지산(富士山) 상봉에는 사시(四時)로 얼음이 얼어 있으므로 단오날에 그것을 캐어다가 천황과 관백의 궁에 바치고, 서민들은 떡을 얼음의 형상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먹어서 더위를 막는 방법이라고 하니 가소롭다.<sup>16)</sup>

이처럼 그는 일본인들은 단오날에 더위를 막기 위하여 천황과 관백에게 후지산의 얼음을 바치고, 일반 백성들은 얼음의 모양을 띤 떡을 먹는 풍속이 있다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그가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여름을 이기기 위해 궁중과 귀족들은 얼음을 먹고, 그것을 손에 넣을 수 없었던 서민들은 얼음 모양의 떡을 만들어 먹는 풍속은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앞으로 닥쳐오는 더위를 이겨낼 수 있다고 믿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시기에 있어서 단오와는 무관한 것이었다. 즉, 그러한 것은 단오가 아닌 6월 1일에 있는 민속이었다. 이를 두고 일본에서는 「얼음(氷)의 절구(節句)」 또는 「얼음(氷)의 삭일(朔日)」이라 하며, 겨울철에 얼은 얼음을 창고에 넣어서 보관하다가 6월 1일이 되면 끄집어내어 먹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얼음은 특별히 보관해두는 창고에서 가져오는 것이지 그가 말하는 후지산에서 가져오는 것은 아니었다.

이러한 창고를 히무로(氷室)라 했다. 얼음을 보관하기 때문에 그러한 이름이 붙여졌겠지만 장소 또한 시원한 곳을 선택하여 만들어졌다. 천황이 살았던 교토에서는 北山 지역에는 아직도 히무로와 관련된 지명이 많이 남아있다. 가령 히무로초(氷室町), 니시히무로초(西氷室町), 기누카사히무로초(衣笠氷室町), 고쇼히무로초(御所氷室) 라는 지명이 바로 그것이다. 실제로 그곳에는 얼음을 보관했던 창고의 흔적도 남아있다. 10세기경의 문헌인 『연희식(延喜式)』에 의하면 이곳 북산의 히무로에서 궁중으로 얼음이 헌상된 것으로 기록되어있다. 그리고 궁중에서는 단지 얼음을 먹는 것이 아니었다. 히무로의 얼음이 녹은 상태에 따라 그 해의 길흉을 점을 쳤다고도 한다. 이런 얼음을 천황은 귀족들에게도 나누어 주었던 것이다.

그러나 서민들에게 있어서 여름의 얼음이란 손쉽게 손에 넣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그리하여 궁중 귀족의 풍속을 모방하여 얼음의 형태를 판과자를 만들어 먹었는데, 그것을 보통 미나즈키(水無月)라 한다. 교토의 것은 대개 삼각형으로 되어있는 흰 떡 위에다 팔이 얹혀져 있다. 흰색과

16) 신유한 『해유록』 <성락훈역> 『국역 해행총제(2)』 (민족문화추진회, 1967년) p36

삼각형을 띄는 이유는 얼음 색깔과 얼음을 갈랐던 모양을 나타내며, 또 팔은 붉은 띄고 있어서 악귀를 몰아내기 위하여 사용된다고 한다. 이러한 6월 초하루의 「얼음의 삭일」의 민속을 신유한은 단오로 착각하여 소개하였던 것이다.

그의 착각은 경섭과 달리 잘못된 지식을 전달받았기 때문에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사행기록을 제대로 보지 않은 것에서 생겨난 것이었다. 그에 관련된 것은 이미 경섭과 임수간이 그의 사행록에 기록으로 남겨 두었다. 경섭은 앞에서도 본 그의 저서 『해사록』에서 다음과 같이 서술했다.

일본은 바다 한가운데 있어 풍토가 후덥지근하며 겨울에는 추위를 견딜 수 없고, 여름에는 한더위가 없다. 그 나라의 풍속이 6월 초 1일에는 얼음을 삼켜 한 해 동안의 더위를 물리치는 방법을 삼는다. 국중에 얼음이 없고 오직 이 산에만 사철 있는데 얼음을 깨어 수송하는 동안에 바로 녹아버려 겨우 천황과 관백에게 바칠 뿐이다. 그 중에 얼음을 얻지 못하는 사람은 12월 초 1일에 얼음덩이 모양처럼 떡을 만들어 저장해 두고 기다리다가, 6월이 되면 얼음 대신 먹는다 한다.<sup>17)</sup>

여기에서 보듯이 경섭의 기록에서 후지산에서 운반해온 얼음을 천황과 관백이 먹고, 그것을 먹지 못하는 일반서민들은 얼음과 같은 모양의 떡을 해서 먹는 민속은 분명히 6월1일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와 같은 기록을 임수간의 『동사일기』에서도 확인된다. 그에 관한 부분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경섭과 거의 차이가 없다.

그 나라 풍속에 해마다 6월 초하루에 얼음을 먹어 1년 동안 더위 물리치는 방법을 삼는데 온 나라에 얼음 있는 곳이 없고 오직 이 산에만 있기 때문에 해마다 여기에서 얼음을 가져다가 다만 왜황 및 관백에게만 드리고 얼음을 얻지 못하는 자는 정월 초하룻날 떡으로 얼음모양처럼 만들어 두었다가 6월이 되면 이를 먹어 얼음에 대신한다고 한다.<sup>18)</sup>(18, 207)

다시 말하자면 임수간은 신유한처럼 일본의 단오를 체험한 사람이 아니다. 일본 단오에 대한 그의 기술은 경섭의 기록을 그대로 베껴 쓰고 있다

17) 경섭, 앞의 책 p291

18) 임수간 『동사일기』 <장순범역 > 『국역 해행총재(9)』 (민족문화추진회, 1967년) p207

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것을 다시 신유한이 모방하여 기록했던 것이다. 그러나 임수간은 그것을 6월 1일의 것으로 소개하였지만, 신유한은 그것마저 착각하여 5월 5일 단오로 생각하여 서술하는 실수를 저지르고 만 것이다. 이러한 점은 당시 조선의 지식인들이 얼마나 일본 민속 문화에 무관심하였는지 를 보여주는 한 단면이라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 4-2. 그들의 기록이 가지는 의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기록을 오늘날의 관점에서 바라다보았을 때 어떠한 의의를 지니고 있을까?

첫째는 오늘날 단오의 상징으로 되어있는 「코이노보리」가 비교적 새롭게 생겨난 것임을 알게 한다는 것이다. 「코이노보리」란 천으로 잉어 모양의 깃발을 만들어 깃발처럼 막대기 메달아 펴놓아 띄우게 만든 것이다. 대개 남자아이가 있는 집에서는 그 아이가 건강하게 잘 자라나서 입신양명하기를 기대하며 그것을 깃발처럼 메달아 놓는다. 지금도 5월이 되면 전국적으로 눈에 띄는 것이 「코이노보리」이다. 그러므로 일반적으로 일본인들은 이것이 아주 오래전부터 내려온 전통적인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해행총재』의 기록에서는 그에 관한 기록은 거의 보이지 않다가 1811년 마지막 사행의 기록에 이르러서야 처음으로 보인다. 그 때 기록을 한 유상필은 대마도에서 단오를 맞이하여 「코이노보리」를 보고 “큰 물고기 모양(大魚形)을 만들어 바람에 나부끼게 한다.”라고 묘사하고 있는 것이다. 그가 말하는 바람에 나부끼는 대어형이란 바로 「코이노보리」인 것이다. 아마도 이것이 한국 기록 중에 처음 등장하는 「코이노보리」에 관한 기사일 것이다.

그 이전에 「코이노보리」에 관한 기록이 일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어쩌면 그들이 일본에 갔던 그 때 「코이노보리」가 없었음을 암시하는 것이다. 일본에는 에도시대 때 서민생활을 그림으로 담아놓은 자료들이 많이 남아있다. 그 중에는 단오에 관한 그림도 다수 남아있어 그것들을 비교하여 보면 시대적 변천과정을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다.

「코이노보리」의 원형과 같은 것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은 1700년대 중반에 들어서이다. 그 예로 1744년의 『繪本寢覺種』과 1746년의 『本朝세사고실(本朝歲事故実)』에 그려진 단오의 깃발 중 눈길을 끄는 것이 있다. 그것은 다름 아닌 흐르는 물길을 힘차게 거슬러 올라가는 잉어가 그려져 있는 깃발이다. 즉, 당시 교토에서는 잉어모양으로 만든 「코이노보리」

는 없었으며, 그 대신 잉어를 그려 넣은 것발이 있었던 것이다. 이것이 훗날 변화되어 잉어모양으로 만들어져 「코이노보리」가 되고, 그것이 전국으로 보급되어 1811년에는 이미 대마도에 까지 보급되어 있었음을 유상필의 기록이 확인시켜주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 있어서 해행총재는 민속학적으로도 매우 소중한 의미를 지닌 문헌임을 알 수 있다.

둘째는 비록 현재는 전해지지 않고 있지만 과거 일본에는 석전이 있었다는 것을 조선통신사들의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다는 점이다. 일본에서는 석전을 인지우치(印地打)라 한다. 인지란 돌이란 말의 이시(石)가 변화된 말이다. 이 놀이는 매우 오랜 역사성을 가지고 있다. 헤이안(平安)시대의 말기에 이미 그것이 있었음을 당시의 모습을 기록한 『연중행사회권(年中行事繪卷)』와 『평가물어(平家物語)』에도 묘사되어있을 정도이다. 그 이후 토쿠가와 이에야스(徳川家康)도 아베가와(安倍川)에서 인지우치를 보면서 전법을 구상했다는 고사가 있을 정도로 그 역사는 유구하다. 처음에는 어른 또는 청년들의 경기였으나, 점차 세월이 감으로써 아이들의 놀이로 변화하였다. 정희득과 경섭이 본 석전도 주로 그 대상이 아이들인 것으로 보아 당시에는 이미 아이들의 석전놀이로 바뀌어져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이 경섭이 놀라고 있는 것처럼 너무나도 치열하여 사상자가 속출하는 관계로 그것에 대한 금지령이 가마쿠라 막부 때부터 몇 번이나 금지령이 내려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없어지지 않고 계속되자 1625년(寬永2)에 에도막부(江戸幕府)에 의해 다시 금지령이 내려진다. 그러자 이번에는 돌을 던지고 싸우는 석전 대신에 창포로 만든 칼을 들고 싸우는 전쟁놀이로 변화된다. 이것을 일본에서는 인지키리(印地切)이라 한다. 당시 많은 그림에서 아이들이 창과 칼을 들고 싸우는 모습은 아마 이것을 표현한 것일 것이다. 어쩌면 단오를 보지 못한 그룹인 강홍중, 김세렴, 황호, 신유한 등이 단지 싸움 또는 전쟁을 익힌다고 한 것은 석전을 나타내는 인지우치가 아니라 창포 칼과 창으로 아이들이 싸우는 인지키리였는지 모른다.

이러한 변화를 겪으면서도 석전은 좀처럼 사라지지 않았다. 지방에서는 그 놀이가 근대까지 행하여졌다 한다. 가령 야마구치 하기(萩)에서는 1800년대 후반까지도 석전이 있었다 한다. 여기서는 아부가와(阿武川)를 사이에 두고 하기 성 아래 카와시마(川島)에 사는 사족(士族)의 아이들과 土原에 사는 서민의 아이들이 한편이 되고, 그에 비해 강 맞은 편 樺郷의 마츠모토(松本)와 우에노(上野)에 사는 아이들이 한편이 되어 한판 승부를 벌인



다. 많을 때는 5.60명씩 되었다 한다. 참가하는 아이들은 모두 10세 이상이었고, 7.8살 되는 아이들은 돌을 날랐다고 한다. 처음에는 서로 돌을 던지며 전투를 벌이지만 나중에는 죽창으로 치고받고 하는 육박전을 벌여 승패를 가리는데, 어떤 아이들은 집에서 대대로 내려오는 칼도 가지고 와서 무기로 쓰는 아이들도 있었다. 그러므로 손과 발에 상처를 입는 아이들도 속출하였다 한다.<sup>19)</sup>

그리고 근대까지 치바현 카쓰우라시(千葉県勝浦市)에서는 단오날에 타타라(多多良)와 하라오카(原岡)의 청년들이 시내를 두고 돌싸움을 했다 하고, 사이타마현 오호사토군(埼玉県大里郡寄居町)에서도 아라가와(荒川)라는 시내를 둘러싸고 돌싸움을 했다 한다. 그리고 이긴 마을이 그 해 풍년이 든다는 속신마저 있었다 한다.

이것으로 보아 어찌면 이 놀이는 원래 그 해 농사의 수확을 예측하는 일종의 점술신앙놀이인 동시에 자연스럽게 전투의 기법을 익히는 훈련이었던지 모른다. 오늘날에는 이 놀이는 완전히 자취를 감추었다. 이러한 석전의 민속놀이가 초기의 조선통신사들의 기록에 자주 등장한다는 것은 그 시대가 매우 성행하였음을 알려주는 것이기도 하다.

셋째는 당시 창포에 관한 민속이 오늘날까지도 이어지지만 그 양상이 많이 달라져 있음을 알 수 있다. 정희득은 당시 일본인들은 창포주를 마시고, 창포를 처마 끝이나 문 위에 다고 본 것이 오늘날에는 창포주도 거의 보이지 않고, 또 창포를 지붕이나 처마 끝에 매다는 집도 거의 사라지고 있다. 그러한 것이 도회지일수록 사라지는 속도는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오늘날의 현상과 비교하여 그 변화의 양상을 짐작하는데 있어서도 『해행총재』의 기록은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넷째는 단오의 음식으로 치마키는 일반적으로 새 이엉 잎으로 찹쌀밥을 싸가지고 찌서 만든 것이며, 그에 비해 카시와모치는 떡을 떡갈나무 잎으로 싸서 만든 것이라는 인식이 있다. 그러나 정희득의 기행문이나 『계미동사일기』에서 보듯이 토쿠시마에는 창포로 떡을 싸서 만드는 치마키가 있었으며, 또 대마도에는 떡이 아닌 밥을 떡갈나무 잎으로 싸서 만든 카시와모치가 있었음을 이들의 기록이 증명을 하여주고 있는 것이다.

다섯째는 치마키와 카시와모치는 당시 조선사회에서는 매우 생소한 음식이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그 중 카시와 모치는 일본인이 개발한 것이어서 조선통신사들이 모르는 것은 당연하지만 치마키를 모르는 것은 이상한

19) 平野秋來 『長州之天下』(マツノ書店, 2001年)

일이다. 왜냐하면 단오의 민속이 중국에서 발생하여 한국과 일본으로 전래될 때 당연히 그에 따른 단오의 음식인 치마키도 전래되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마키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창포 잎으로 싼 떡”이라고 표현한 것은 그러한 음식이 당시 조선에서는 없거나, 아니면 매우 드물어 일반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더군다나 조선시대의 세시풍속을 기록한 『동국세시기』 및 『경도잡지』에서도 단오의 음식으로서 쭉뚝만 들고 있을 뿐 치마키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이 없다. 이러한 점 등을 보더라도 치마키는 조선에서는 매우 생소한 음식임을 알 수 있다. 그것이 오늘날까지 중국에도 있고, 일본에 있지만 한국에는 없다는 것은 한국사회에는 전해지지 않았거나 아니면 일찍부터 사라져서 일본으로 사행을 갔던 조선시대의 지식인들이 그러한 음식을 몰랐을 가능성이 높다. 이처럼 조선의 민속을 돌아보는 데 있어서도 그들의 기록은 매우 소중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 5. 결론

이상과 같이 조선시대에 있어서 일본에 관한 중요한 전집인 『해행총재』 속에는 의외로 일본 단오에 관한 기록이 많았다. 그 중에는 직접 경험해본 자의 기록도 있지만, 그와 반대로 경험을 해보지 못한 자들의 기록도 있었다. 그만큼 단오에 대한 관심이 높았는지 모른다.

그들이 일본 단오의 민속 가운데 자신들의 문화와 동일한 것으로 보았던 것은 창포의 민속이었다. 그 반면 이질적인 요소로 보았던 것은 「노보리」와 「코이노보리」, 「석전」 그리고 「치마키」와 「카시와모치」로 대표되는 단오 음식이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정치외교적인 목적을 띤 일본 방문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관심이 일본민속문화에 있는 것도 아니며, 또 마음대로 일본인을 접하고 행동할 수 있는 처지도 아니었다. 그리고 일본측의 규제도 있었는지 모른다. 이러한 요소들로 인해 그들이 보지 못하였거나 보았다 하더라도 그다지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 그들의 기록에서 빠뜨렸는지도 모른다. 가령 「노보리」 안의 그림과 그 밖의 장식물. 예를 들면 갑옷과 투구 및 창 등의 무기류의 장식물들은 일본측의 규제로 말미암아 보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에 비해 조그만 신경을 쓰면 창포의 민속에 대해서는

체험도 하고 직접 볼 수도 있었을 터인데, 그에 대한 기록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그들이 일본 민속에 대한 관심이 그다지 높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일본민속에 대한 낮은 관심도는 그들이 기록에 그대로 나타난다. 가령 이정직, 강홍중, 김세렴, 황호 등은 일본단오를 서술하는 문장이 거의 같고, 또 신유한은 기존의 문헌조차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고 6월1일의 세시풍속을 단오의 풍속이라고까지 착각하여 소개하는 실수마저 저지르기도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경섬이 교오토에는 석전이 없다고 말하는 것처럼 당연히 잘못 이해하는 경우도 생겨나게 되는 것이다. 또 경섬은 조선에도 석전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놀란 듯이 일본의 석전을 바라보고, 또 그에 해당되는 조선의 놀이를 씨름을 들고 있는 것은 매우 의외적인 일이다. 그의 기록은 어쩌면 조선의 석전에 대해 문외한이었거나 아니면 일본인이 호전적이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서술된 것인지도 모른다. 이처럼 그들은 잘못된 지식으로 일본의 단오를 바라보고 있는 경우도 적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기록은 다음과 같은 점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지니고 있다. 첫째는 오늘날 단오의 상징으로 되어있는 「코이노보리」가 비교적 새롭게 생겨난 것임을 알 수 있고, 둘째는 현재는 전해지지 않고 있지만 과거 일본에는 석전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셋째는 당시 창포에 관한 민속이 오늘날까지도 이어지지만 그 양상이 많이 달라져 있음을 깨닫게 하며, 넷째는 단오의 음식으로서 치마키와 카시와모치는 당시 조선사회에서는 매우 생소한 음식이었다는 점을 알 수 있게 하는 점 등이다.

『해행총재』 속에는 일본 단오뿐만 아니라 많은 요소의 일본민속에 대한 기록이 남아있다. 비록 그들이 전문적인 연구자의 시점이 아니라 하더라도 1년가량 장기간에 걸쳐 일본을 여행하며 직접 보고 느끼며 들은 바를 기록한 귀중한 문헌이다. 지금까지 그들의 기록을 외교사 및 교류사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져 왔으나 역사 민속학에 있어서도 이들의 기록은 매우 소중하다. 앞으로 다른 민속에 대해서도 그들의 기록을 통하여 알아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 【参考文献】

- 송희경 『일본행록』  
정희덕 『월봉해상록』  
경심 『해사록』  
이경직 『부상록』  
임수간 『동사일기』  
강홍중 『동사록』  
김세림 『해사록』  
신유한 『해유록』  
작자미상 『계미동사일기』  
유상필 『동사록』  
孫晉泰 「石戰考」 『孫晉泰先生 全集(2)』(太學社. 1981年)  
金宅圭 『韓國農耕歲時の研究(上)』(第一書房. 1997年)  
民俗學研究所 『年中行事圖說』(岩崎出版社.1975年)  
半澤敏郎 『生活文化歲事史』(東京書籍株式會社. 1990年)  
桶口清之 『日本の風俗の迷』(産報. 1984年)  
平野秋來 『長州之天下』(マツノ書店. 2001年)  
入江相政 『宮中歲時記』(TBS. ブリタニカ.1979年)  
鈴木棠三 『日本年中行事辭典』(角川書店. 1979年)  
宮田登 『江戸歲時記』(吉川弘文館. 1981年)  
永田久 『年中行事を科學する』(日本經濟新聞社.1989年)  
鎌田久子 『女の力 -女性民俗學入門-』(青娥出版. 1990年)  
洲鎌佐智子 「端午」 『京の五節句』(京都文化博物館. 2000年)  
印東道子 「石合戰とスリングストーン - 弥生時代のスリングストーンの民族學的考察一」 『季刊どるめん(24).(25)』 1980年)

## 要 旨

朝鮮通信使たちが残した『海行摠載』の中には意外にも日本の端午に関する記録が多い。そのなかには直接経験してみた人の記録もあるが、それとは反対に経験をしなかった人たちの記録もある。彼らが日本の端午の民俗のなかで自分の文化と同一のものとして見たのは、菖蒲の民俗であった。その反面、異質的なものとして見たのは、幟と鯉幟、石合戦そして粽と柏餅で代表される端午の食べ物であった。だからと言って彼らの日本の民俗に対する関心が高かったとは言えない。

日本の民俗に対する低い関心度は、彼らの記録にそのまま表れている。例えば、李景稷、姜弘重、金世濂、黄屏などは、日本の端午を叙述する文章が殆んど同じで、また申維翰は、既存の文献さえ正確に把握しないまま、6月1日の歳時風俗を端午の風俗だと錯覚して紹介する過ちまで犯してしまう。それゆえ慶暹が京都には石合戦がないと言っているのと同じく間違っ理解する場合も生ずるのである。また慶暹は朝鮮にも石合戦がよくあったのにも拘わらず、驚いた表情で日本の石合戦を見て、それに当たる朝鮮の遊びは、相撲(씨름)であると言ったのは、とても意外なことである。

それにもかかわらず、彼らの記録は次のような点で重要な意義を持つ。一番目は今日端午の象徴となっている「鯉幟」が割合に新しくきたものであること、二番目は過去の日本には石合戦があったこと、三番目は当時の菖蒲に関する民俗が、今日までも続くが、その様相が多く変わっていること、四番目は、端午の食べ物として粽と柏餅は、当時朝鮮社会では見知らぬものであったことなどが分かるという点である。

『海行摠載』の中には日本の端午のみならず、その他の多くの日本の民俗に対する記録が残っている。たとへ彼らが専門的な研究者の視点ではなくても、1年ぐらいの長期間にわたり日本を旅行し、直接見て感じたことを記録した貴重な文献である。これまで彼らの記録を主に海外交流史的な側面に取り扱われてきたが、歴史民俗学からの視点も大切な価値を持つものである。

キーワード：朝鮮通信使, 端午, 鯉幟, 鯉幟, 石合戦, 粽, 柏餅

투 고 : 2007. 2. 28  
1차 심사 : 2007. 3. 10  
2차 심사 : 2007. 3. 31

住 所 : (680-749) 울산시 남구 무거2동 산29번지 울산대학교 일본어·일본학과

電 話 : 052-259-2542

e-mail : nosh1@hanmail.net